

정책지원자금 금리 인하 건의

본회는 (사)대한양계협회, (사)대한양돈협회와 공동으로 농림부에 정책지원자금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지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기금 중 융자성 기금의 경우 기금별로 상이한 금리 조건 등으로 인해 자금 지원의 형평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단지조성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축산위생시설자금, 생산자 단체의 공판장건설 및 계열화 사업 자금의 금리가 5%인데 반해 민간 가축 계열화 사업, 전문판매점 사업 등은 8%로 서

로 상이한 적용으로 시설투자비를 단기 차입금으로 충당하는데서 자금 운용의 불안정성 및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반대출 금리가 인하된 여건에서 정책지원자금 금리수준에 있어 제조업, 축협, 사육농가의 경우 비교할 때 민간 유통시설 및 가축계열화 사업체에 비해 부담하는 것이 정책지원자금의 지원목적에 있어 부분적인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8% 금리를 5% 동등수준 또는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현행보다 인하하여 경쟁력 도모 및 축산업 경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기 지원된 가축 계열화 사업자금, 시설개선자금, 수출기반조성자금, 경영자금 등에 대하여도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된 금리와 형평성을 맞추어 5%로 인하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축산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한 결과 외형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사양관리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아 국제 경쟁력 확보면에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기 지원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99년 현재 전국 닭도축장 60개소

농림부에서는 발표한 99년 전국 도축장 현황에 의하면 닭도축장은 휴업중인 2개소를 포함하여 60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닭도축장의 하루 처리능력은 1백95만4천수 규모이나 지난 98년 도축실적은 하루 99만7천수로 97년의 1백17만8천수에 비해 15.4%가 감소하였다. 처리능력을 고려한 도축실적이 51%에 불과한데 97년에 비해 10%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수요량에 비해 처리능력이 절대적으로 많아 설비가 과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일 처리능력 1백95만4천수 중 계열업체의 처리능력은 67만8천수로 34.7%, 일반 닭도축장의 경우 1백27만6천수로 6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98년도 도축실적은 계열업체가 1일 51만9천수, 일반 닭도축장은 1일 47만8천수로 각각 52.4%, 47.96%의 비율을 보였다. 가동율은 계열업체는 76.5%, 일반 닭도축장은 37.6%로 나타났다.

닭 저혈당증 · 가금티푸스 주의보 발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28일 닭 저혈당증-급성폐사증후군과 가금티푸스의 발생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검역원은 올해들어 가금티푸스가 이미 동두천, 김제, 철곡 등에서 30여만수가 발생해 3천6백여수가 폐사했으며 이상고온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2주령 전후의 육계에서 자주 발생해 급사하는 저혈당증-급성폐사증후군은 감염되면 배를 땅에 붙이고 다리를 뒤로 뻗은채 폐사하는데 뚜렷한 예방대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다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복합비타민을 투여하고 계사내 점등관리를 간헐점등으로 해주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축방역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 직무자와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가축방역을 게을리한 축산농가에 대해 처벌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권이 부여되면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나 농장에 가축 이동제한, 교통차단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인신구속도 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영양

오늘날의 육계품종은 고도의 육종 기술로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했으며 이에 따라 영양의 요구량과 사료효율도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병아리에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고도의 성장에 요구되는 완전한 영양의 공급이 가장 중요하며 사료가 영양의 완전 공급을 하지 못할 때 생산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료자체는 완전한데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로서 사료 못지 않게 중요시 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닭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 ①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 : 제한 급이 된 상태
- ② 완전한 영양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 즉, 저에너지 사료나 섬유질이 많다는가 아니면 풀사료와 같은 것을 섭취하면 배는 부르나 영양분은 모자람.
- ③ 더 먹기를 원치 않기 때문 : 식용의 감퇴
- ④ 질병의 발생과 스트레스

육계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이 2/3 이상을 차지하므로 사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 ① 사료의 낭비가 없도록 한다. 브로일러는 섭취한 사료와 비례하여 증체한다. 그러므로 사료등 밖으로 흘러 내린 사료는 완전한 손실인 것이다.
- ② 고 에너지 사료에서 브로일러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 ③ 사료의 저장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하여 사료에 곰팡이가 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사료효율은 기록한다.
- ⑤ 사료의 교체는 점차적으로 한다.
- ⑥ 물과 공기는 가장 값싼 사료다. 급수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닭이 먹기 좋게 조절해 주어야 하며 환기를 잘 시켜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절식이 닭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닭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질병 이외에도 온도, 광선, 계사내 공기 및 영양상태가 포함된다.

특정 영양소를 예로 들자면 비타민 A 결핍시 대장균 감염에 대한 면역체 생산이 저하되고 사료에 아연(Zn)과 메치오닌을 별도로 첨가하면 대식세포(macrophage)의 생존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심하게 결핍된 사료를 급여하면 체내 림프구의 숫자가 감소되는 등 체액성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파키스탄의 가금질병학자들은 성장 중인 육계에 있어서 절식이 호흡기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5일령의 육계를 일주일간 절식시키고 기관지내의 세포성 면역기능을 조사하였다.

일주일간의 절식으로 폐포의 대식세포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병원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식세포(食細胞) 기능도 대폭 감소되었다. 이처럼 절식으로 인한 체내 면역기능 저하는 계사 내에 상재하는 병원균의 감염을 쉽게 함으로써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병된다.

< Feed Mix, '99 >

닭고기 관련 전문서적 출간돼

닭고기에 관련된 전문서적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대 축산가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계란과 닭고기의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 그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닭고기에 대한 상식이나 체계화되지 못했던 지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성기 교수는 강원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강원대에 재임중에 있다.

닭고기편의 경우 닭고기의 영양분석에서 실제 도계공정에 대한 소개,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닭고기의 위생관리, 가공식품의 제조 및 특성에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각 업체에서 신입사원교육을 물론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책자가 필요한 경우 본회로 연락하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2천원이다.

세계 곡물 재고량 감소

지난해 세계곡물 재고량은 생산감소와 소비증가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 하반기에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3,348만톤(1.8%) 감소한 18억 4,364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761만톤(0.4%) 증가한 18억 4,948만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584만톤 상회하여 재고량은 전년대비 584만톤(1.8%) 감소한 3억 2,073만톤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곡물의 재고율

은 16.8%로 FAO 권장 재고율 17~18%보다는 약간 미달되는 수준이다.

교역량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 수입국의 생산회복 영향으로 쌀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1,207만톤(4.8%) 감소한 2억 3,801만톤이다.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은 미국 및 중국(옥수수는 홍수피해가 크지 않음)의 풍작으로 3.2%(1,861만톤) 증가한 5억 9,249만톤인데 이중에 미국, 중국은 각각 1,408만톤, 1,970만톤이 증가

하였으나, 수출국인 남아공은 20% 및 아르헨티나는 25%가 각각 감소하였다.

소비량은 사료용이 크게 늘지 않아 전년대비 0.9%(225만톤) 증가하고, 생산량을 크게 하회(1,051만톤)하는 5억 8,198만톤으로 집계되어 재고량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9,720만톤, 재고율은 16.7%로 FAO 권장수준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가격은 99년 4월 19일 현재 톤당 96.7불로서 98년 4월(톤당 107.8불)보다 10.3% 하락했다.

말레이시아, 계획생산으로 가격 회복

말레이시아정부는 병아리 공급과잉으로 97년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98년은 생산자들이 계획생산을 한 결과 가격이 회복되어 양계산업이 대체로 양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98년 양계산업보고서에 의하면 육용 병아리 생산자가 96년의 42명에서 97년에는 31명, 그리고 98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하였고 종계 병아리의 도입수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99년에도 98년부터 시행한 계획생산에 힘입어 병아리 생산량이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계획생산의 효과로 인해 양계업자들은 생산비용에 알맞게 병아리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농무부, 손 애플 밸리사 제품 오염판정

미 농무부는 지난 4월 13일 식품제조회사인 손 애플 밸리(Thorn Apple Valley)사가 한국과 러시아에 수출한 모든 육류 및 가공류 제품이 오염되어 있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농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에 약 5천4백40톤이 수출됐고, 현재 미국 내에 약 4천톤이 보관돼 있는 이 회사의 닭고기·쇠고기 등이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손 애플 밸리사는 지난 1월에 임산부와 면역체계가 허약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핫도그용 고기 1천3백60kg을 회수한 바 있다.

이 성명은 손 애플 밸리측이 현재 보유중인 모든 생산품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며 식용으로 재가공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이 회사 제품의 포장에 'EST 13529' 또는 'EST P - 13529'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지난 1월 24일 미국에서 문제된 이후 이 회사 제품은 수입금지했으며 이미 반입됐거나 부두에 보관중인 것에 대해서도 회수·압류·매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중앙)

소비촉진 홍보비 협찬 줄이어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닭고기 소비촉진사업에 회원사는 물론 관련업체에서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새로 가입한 성화식품은 물론 본회 가금처리 본과의 효성식품에서도 참여하는 등 육계관련업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닭고기소비촉진홍보비 접수현황(5월10일현재)

회원사(협력업체 포함)	금 액
(주) 하 림	29,073,100원
(주) 마니커	17,000,000원
(주) 해표푸드서비스	10,942,990원
(주) TS해마로식품	6,000,000원
우인산업 (주)	3,000,000원
(주) 화인코리아	5,000,000원
(주) 한일농원	6,000,000원
한강식품 (주)	3,300,000원
성화식품 (주)	600,000원
효성식품	500,000원
합 계	81,416,090원

※ 홍보비 송금구좌: 한빛은행 (339-161112-13-003)

동방물산, 노계가공품 ‘장모님’ 시리즈 출시

본회 정회원(가금처리분과)인 동방물산(김준형 대표)이 중계노계와 산란노계를 가공하여 훈제 및 냉동식품 ‘장모님’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계정육가공업체로 지난 93년에 출발한 동방물산은 지난해 매출 62억원에 수출 27만불 등 거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계육업계에서 일본, 홍콩 등으로 노계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

단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2월에는 충청남도 수출지원대상업체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산란날개 가공특허(제 43520호)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동방물산은 120여명의 직원이 충남서산 본사 및 제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사업으로 유아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규모는 산란노계 및 중계노계 총 5백40만수

규모이며 1차가공품(계정육, 분쇄육) 3천1백20톤, 2차가공품(훈제, 냉동식품) 1천1백4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2차가공품에 ‘장모님’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며 노계를 가공한 제품이라 쫄깃쫄깃해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축협중앙회 음성 계육가공공장 시운전

오는 7월 초부터 정식 가동에정인 축협중앙회 음성 계육가공공장이 지난 5월 10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시설된 위생 자동화 설비는 시간당 8천수 규모로 1일 6만4천수까지 작업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열사육 60~70%정도, 외부구매 30~40%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열사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초부터 경기도, 충청도 일원에서 6만여수를 시험 입식하였으며 정식가동시점에 맞추어 본격적인 입식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요리카드 배포부수 10만부로 늘려

본회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요리카드가 이번 5월부터 10만부로 늘려 배포한다.

기존에 5만부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며 배포 매장도 기존의 11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닭고기를 홍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20개 매장중 할인점은 12개로 이마트 5개(창동, 분당, 부평, 안산, 안양), LG마트 1개(고양), 그랜드마트 1개(화곡), 롯데마트 2개(분당, 관악), 2001아울렛 1개(중계), 메가마켓 2개(부산, 언양) 등이며, 백화점은 8개로 현대백화점 2개(신촌, 삼성), 그랜드백화점 2개(도곡, 일산), 신세계백화점 1개(미아), 경방필백화점 1개(영등포), 갤러리아백화점 2개(압구정, 잠실) 등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

역과 부산권에 분포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번에 7차로 제작·배포하는 요리는 ‘닭강정’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로서 아이들 간식으로 알맞는 요리이다.

사료급여량 증가로 중계사육성적 향상

목표체중근점을 위해 사료에너지와 사료급여량을 높인 결과 중계사육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지난 4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생산책임자회의에서 (주)해표푸드서비스 축산부 최충집부장은 98년 7월에 입식한 중계계군에 대한 사육성적향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육성과정에서 체중이 미달하고 균일도가 낮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표준 매뉴얼에 나와있는 목표체중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특히 시험을 진행한 양평농장 계사의 경우 단열수준이 높지 않아 환경온도가 10℃ 안팎이었으며 급여량 허실을 3%정도로 추산하여 피크 사료량을 190g/수/일 로 하였으며 사료 에너지가도 2,800 Kcal/kg (ME기준)에서 2,860 Kcal/kg (ME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시험 결과 미달되던 체중이 산란 2~3주전부터 목표체중을 상회하였고 표준매뉴얼보다 2주 먼저 산란피크에 도달하였으며 38주(4월21일)현재 11주째 80%이상의 산란율을 보였으며 난중도 표준 난중에 거의 근접하였고 계군의 균일도도 우수하였고 폐사율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HACCP,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HACCP시행에 따른 세미나에서 의견 모아 -

본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주)체리부로식품에서 농림부 담당관, 본회 회원사 대표 및 HACCP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ACCP 시행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회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닭도축장에 HACCP제도가 도입되어 닭도축장 규모별로 연차적,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어 그간 닭도축장내 본 제도의 적용을 위한 실무작업반에서 추진된 내용 설명 및 시행시기 등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먼저 (주)체리부로식품 허충무 관리이사가 (주)체리부로식품의 HACCP 추진 배경, 그간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자체위생관리기준 모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농림부 장기운 사무관이 HACCP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한편,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우인산업(주)의 이찬모 전무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샘플을 제시하고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본회 회원사 대표들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향문절개가 상당수 작업장에서 벤트커터기(향문절개기) 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어 향문내에 잔류하는 계분으로 심각한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위생적인 닭고

기 생산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향문제거기를 설치토록 검토되어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하림의 김홍국 대표는 HACCP제도의 순차적 실시 경우 발생하는 경비부담에 의한 원가상승으로 부작용 및 추진상의 애로가 일어날 수 있는것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발생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본회에서는 세미나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농림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1) 닭도축장에 벤트커터기 설치 및 향문절개 실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계분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닭고기 공급, 2) HACCP 체계는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지만 현 닭도축장의 인력, 시설, 인식의 여건과 경비부담 및 제품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HACCP 시행 시기를 닭도축장 규모별로 연차적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정성을 도모 3) 닭도축장 HACCP 시행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모든 도축장이 의무실시하는 시점까지 유예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소비확대로 생산량 지속적 증가 예상

미농무부는 지난 2월 22일~23일에 개최한 「농업관측회의」에서 2008년까지의 농업전반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발표했다.

브로일러 생산량은 꾸준히 확대되고있는 추세이며, 2008년에는 98년과 비교하면 42.8% 증가한 1천 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확대를 유지하는 최대 요인은 순조로운 자국내 소비확대이다.

1인당 소비량은 98년 38.7kg에서 2008년에는 32.3% 증가한 51.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브로일러 등의 가금육 생산은 기타 육류와 비교하면 가장 계절화가 잘 되어 있지만 이번 전망 기간을 통해서 더욱 계절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 규모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 등에 의

해 생산비 증가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앞으로도 브로일러 등의 가금육은 기타 육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시장개발 등으로 이번 예측을 통해 소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브로일러 수출은 경제부진 등으로 아시아에 대한 수출둔화와 최대 수출시장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감 등으로 99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 2000년부터는 수출이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시장 경쟁심화 등에 의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8년의 브로일러 수출량은 98년과 비교하면 45.5%증가한 29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